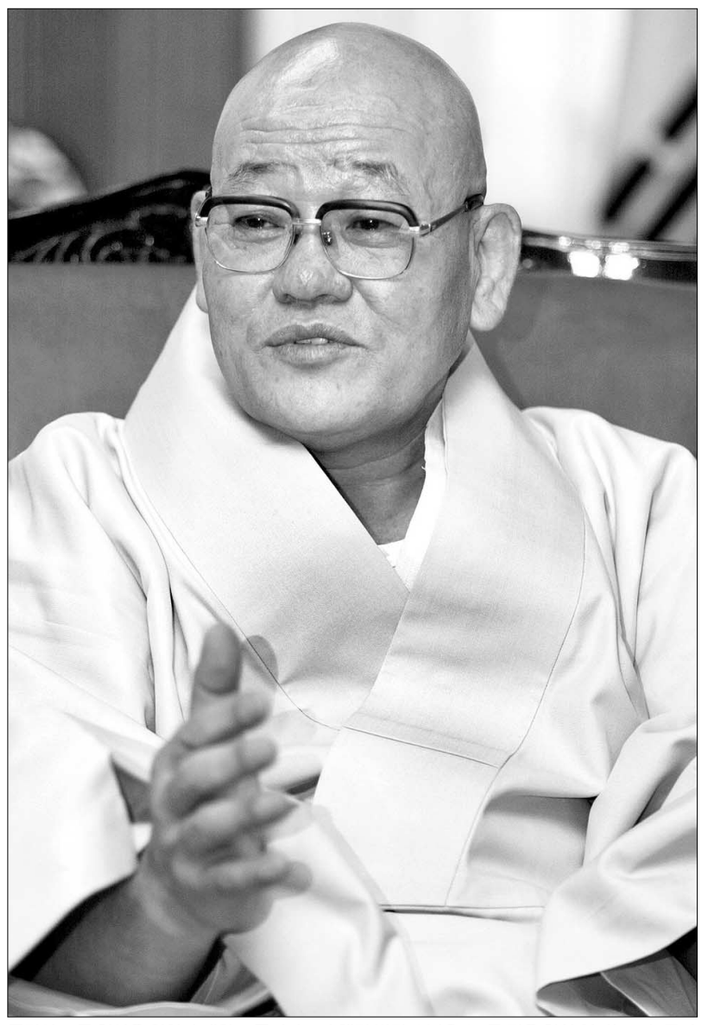
평생 고통 모으러 다닌 수행자

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 적
원력과 가르침



종단의 모든 현안을 원칙과 대화로 풀어가고자 했던 법장 스님은 '모든 것을 항상 열어놓고 누구와 만나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소신을 종단행정이나 평소 생활에서 구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장 스님의 45년 수행생활은 스님 스스로가 원했듯이 대중과 함께 한 삶이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성품 그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자한 수행자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은 선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불교의 사회화 · 대중화 ·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오롯이 대승보살의 실천적 삶을 살아온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쯤 지난 2003년 여름, 법장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원장스님 원장스님 하지만 난 그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지요" 라고 말했었다.

이 말 한마디는 법장 스님이 스스로 어떤 삶을 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불교 세계화 · 대중화 앞장선 '원력보살'
체면 · 격식 안 따지고 수많은 이들과 대화

고등학교 재학시절, 출가한 사촌형에게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출가했던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이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법장 스님은 늘 대중과 함께 하길 원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나,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고 생명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스님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인재양성으로 이어졌다. 수덕사 주지 당시 20년을 넘게 전국 선방의 대중공양을 해 온 스님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이를 거르지 않았다.

또 역대 총무원장 중 승가교육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승가교육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등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법장 스님은"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법장 스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격의없이 만나길 좋아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2년6개월의 총무원장 재임기간 중에 사람들을 만난 횟수는 역대 총무원장 중 최고다.

숨 돌릴 틈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장 스님은 신도단체 대표나 신행단체 불자들을 모두 만났다. 수덕사 주지 시절엔 한 달에 1만㎞를 다녔을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았던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깍듯했다.남달리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자상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총무원장 격에 맞지 않게 작은 일에도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법장 스님은 "모두가 부처님 일인데 크고 작고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탈하고 꾸밈없는 성격 역시 이따금씩 '종단 정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능란한 정치보다는 원칙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법장 스님의 스타일은 때로는 '종단 정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장 스님은 늘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눈길을 가는 나그네여, 조심해서 발을 디뎌라. 오늘 네가 가는 그 행적이 뒷사람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리니'.

법장 스님이 가장 즐겨 읽던 서산 대사의 시구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던 자유자재한 수행자였던 춘성 스님과, 평생 일꾼들과 똑같이 일했으면서도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던 노스님(은사 원담 스님의 은사인 벽초 스님)을 사표로 삼았던 법장 스님.

선의 본산인 수덕사 주지를 맡고 나서도 법장 스님의 수행정진은 계속됐다.

매일같이 정진을 거르지 않으며, 새벽예불은 반드시 올리고, 도량청소에 빠지지 않으며,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사하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다섯 가지 계율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지켰다.

평소 법장 스님은 '신심 · 원력 · 무사심(無私心)'을 수행자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는 늘 "신심이 없으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곡당 법장대종사 영결 이모저모

"법장 큰스님, 예슬이가 왔어요!"

◯…법장 스님과 결연을 맺었던 최예슬(13 · 서울 효제초6)양도 9월 12일 빈소를 찾았다.

9월 11일 오전 뉴스를 보고 법장 스님의 원적 소식을 접한 예슬이는 엄마와 함께 조계사 빈소를 찾아 법장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예슬양은 "토요일 저녁에 법장 스님이 사주신 안경이 고장 나서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았다"며 "할아버지처럼 잘해 주셔서 커서 꼭 은혜에 보답하려 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황우석교수 "곁에서 모셔야 하는데"

◯…9월 11일 오전 법장 스님의 빈소를 방문했던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는 오후 4시경 다시 빈소를 찾았다.

전날 전등사에서 법장스님의 쾌유를 기원하는 불공을 드렸다는 황교수는 법장 스님에게 '심산(深山)'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삶의 방향과 연구의 뿌리를 제시해주신 분이 바로 법장 큰스님"이라는 황 교수는 15일 미국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조계사를 방문해 영결식에도 참석했다.

중앙승가대 학인 200여명 단체조문

◯…12일 법장 스님의 조계사 분향소에 단체로는 가장 많은 200여명의 스님이 한꺼번에 들어섰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이사장이었던 법장 스님을 조문하기위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인들이 급히 전세버스로 조계사에 도착했다.

종범 스님은 평소 승가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중앙승가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노력해왔던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원적에 말을 잇지 못했다.

법장 대종사의 영결식이 봉행된 9월 15일 오후 수덕사에서 단혼재가 봉행됐다. 사진은 법장 대종사의 유품을 태우는 장면. 수덕사=박재완 기자

2만여 추도인파 조계사 일대 가득 메워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영결식에는 역대 종단장 가운데 가장 많은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

식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계사 일주문과 우정공원 출입구까지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미처 조계사 경내 앞마당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우정공원에 마련된 추모사진 등을 보며 법장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영결식 조사만 20명

◯…법장 스님의 폭넓은 인맥관계는 이번 영결식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계종단과 정부, 신행단체 관계자 등 무려 20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이 법장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는 조사를 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현고 스님과 최예슬양은 조사를 읽어 내려가던 도중 연신 울먹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법장 스님의 육성 법문이 흘러나올 때는 신도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생전 모시던 사서실 직원들 눈물

◯…법장 스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모셨던 사서실 직원들은 조계사 일주문 밖에서 영결식을 지켜봤다. 특히 매일 법장 스님을 모셨던 재가자 사서 김선임씨는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상스러운 해 무지개 나타나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 주위로 선명한 무지개 원이 나타나 영결식장의 사부대중이 술렁이기도. 구름한점 없는 하늘에 30여분 간 계속 피어난 무지개는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소멸됐다. 상서로 광경을 지켜본 한 불자는 "큰 스님이 돌아가셔서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난 것 같다"고 감격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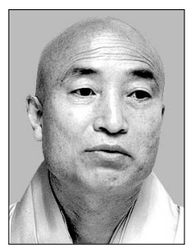
정리=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인 · 터 · 뷰 — 내가 본 법장 대종사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을 누구보다 애통해 한 이는 사형 설정 스님과 맏상좌 정묵 스님 이다. 설정 스님은 생전의 법장 스님을 "강직한 성품으로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분"으로, 24년을 가까이서 모셨던 맏상좌 정묵 스님도 "부모보다 더한 정을 주셨던 분"이었다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신념 · 소신 뚜렷한 열정가

사형 설정 스님



▲법장 스님의 출가시절은?

-개인적으로 법장 스님과 나는 은사 원담 스님 문하로 5년차를 두고 출가했다. 젊은 시절부터 사제로 오래 기간 애틋한 정을 나눴던 관계다.

어린시절 스님은 지금과는 달리 약하고 말랐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셨을 무렵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한번도 예불이나 참선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평소 법장 스님의 성품은?

-나름의 신념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셔서 잠은 서너 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으셨다. 인간관계에서도 남녀노소, 부자거나 가난한 이나 높고 낮은 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만나셨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났다. 승속가리지 않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대하셨다.

▲법장 스님은 어떤 분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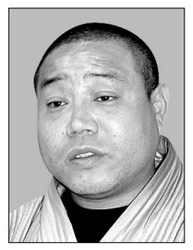
-평생 통장이 없을 정도로 일생을 무소유로 살아왔다. 유품정리를 해보니까 남은 건 평소 쓰시던 유품과 병원에서 지인들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위문금 약간이 전부다. 언제나 남에게 주기를 좋아했고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남김없이 베풀었다.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다. 법장 스님은 수덕사 인근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절에 데려다 길렀다.

(수덕사 수좌)

타인에게 관대 자신에겐 엄격

맏상좌 정묵 스님



▲법장 스님의 병세는 어떠했나?

-14년전 충남병원에서 수술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완치되지는 않으셨다. 이번에는 막혔던 심장의 혈관 2곳을 뚫는 수술이었다.

입원 후 수술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입적 전까지 도신 스님하고 내가 모셨다. 마음이 아파서 수술실에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시자가 들어갔다.

▲입적 전 남긴 말씀은 없었나?

-수술 전 큰스님은 한라산을 가시고 싶어 하셨다. 종단 소임자들과 재가 종무원, 조계사 식구들과 꼭 한라산에 한번 가자고 하셨다.

수술실에서 시자를 통해 모든 여러 가지(수덕사 토굴방문열쇠 등)를 내게 전하셨다. 지금 입고 있는 장삼도 병원에서 스님이 물려주신 옷이다.

24년째 한번도 스님을 벗어나 살아온 적이 없는데 가슴이 찢기는 듯한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법장 스님과의 인연은?

-은사스님을 처음 뵌 것은 열살 무렵 친척 스님의 손을 잡고 수덕사로 갔을 때다. 따스한 손길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큰스님은 제게 엄격한 스승이자 자애로운 어버이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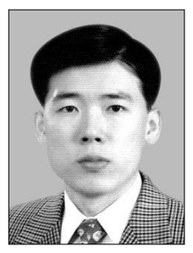
▲평소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당신의 수행에는 엄격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하여, 열고 닫는 법이 자유자재하셨다. 특히 출가자에게는 원력을 세우며, 수행을 할 때는 뜻을 산과 같이 세우고 마음은 큰 바다와 같이 쓰라고 하셨다. 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문도들 모두 신명을 바쳐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선본사 주지)

인류 문명의 새 패러다임 禪 강조

재가 제자 한중광씨



▲법장 스님은 선사상 중흥에도 남다르셨는데.

-간화선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선(韓國禪)의 본찰인 수덕사 주지로 오래 계시면서 경허-만공 선사의 선사상을 기치로, 선을 펴시고자 혼신의 힘을 쏟으셨다. '무불선원 · 선학연구원 · 선학대학원' 모두 한국 선을 중흥시키고자 애쓰신 스님의 업적이다.

다만,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잘못 받들어 현재 무불선원 선학연구원이 침체되어 있어 스님께 죄송스러울 뿐이다.

▲스님의 선에 대한 원력은?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禪)을 주창하셨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고, 종교와 종교가 회통될 뿐만 아니라, 인종과 인종이 화합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역설하신 것이다.

▲스님과의 인연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송담 스님을 뵙고 선문에 들어, <간화선의 사상체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법장 스님을 뵙고 경허 스님의 선(禪)을 공부하게 되었다.

간혹 우스개소리로 상대를 편하게 하시던 스님은 멋을 아시고 때로는 즐기시면서 누구라도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을 갖고 계셨다.

스님께서는 경허 스님에 대한 말씀과 법어집도 주시며 격려하셨는데 실제 공부해보니 너무 대단해 내 학문의 전환점이 되었다. 스님의 법은이 없었다면, 선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인 경허 선에 단박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법장 스님의 원대한 서원과 지중한 법은을 잊을 수가 없다.

(성균관대 강사)

정리=조용수 기자